



# Homeland Security

열대 태풍/허리케인인 샌디(Sandy)가 법 집행 운영에 영향을 끼치고, 공식적인 대피 명령 혹은 비상시 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촉발시킨 결과, 미 이민 세관 집행국(ICE)와 미 세관 국경 보호국(CBP)의 최우선순위는 생명을 살리고 부지하며, 피해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재산 손실을 최대한 막으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에 집중하는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 대피 기간 동안 피해지역에서 이민자 단속 목적의 검문소 사용을 포함해서, 샌디로 인한 대피나 피신과 관련해 이민자 단속 활동은 없을 것이다. 만약 주나 지방 법 집행기관이 현재 구금 중인 사람들을 샌디로 인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주나 지방 법 집행기관은 전적으로 ICE 나 CBP 가 발부한 이민 구금명령에 근거해 석방의 시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만약 주나 지방 법 집행기관이 ICE 나 CBP 의 구금명령에 해당되는 사람을 샌디로 인해 석방하기로 결정할 경우, 석방하기 전에 가능한 한 지역 ICE 나 CBP 사무국에 연락해 해당 인물을 석방하는 일이 사회에 위험을 끼치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주나 지역 교도소에서 개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결정할 경우, 주와 지방 법 집행기관들은 지역 사회와 개인 수감자의 안전 필요성에 대해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

본 부서의 법 집행 구성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법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샌디로 인한 혼란을 악용하려는 범죄자들의 노력에 대해 잠시도 방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피나 대응 상황에서 빠르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방 당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확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ICE 와 CBP 는 또한 현재 우리가 구금 중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안에도 신경을 써, 허리케인이나 파괴력을 지닌 대형 폭풍에 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샌디로 인해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ICE 는 해당 피해지역 구금 시설에 있는 구금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송할 것이다. 이송시에는 기록에 있는 구금자의 변호사들에게 통보가 갈 것이며, 온라인 구금자 위치표시가 갱신될 것이다. 이 이송은 특성상 임시적이 될 것이다.

토마스 S. 원코우스키  
최고 집행담당 책임자  
미 세관 국경 보호국

다니엘 H. 래그스데일  
시행 부국장  
미 이민 세관 집행국